



회원을 위한 우리 학회

취임사를 쓴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새 천년 첫 해가 가고 이제 이임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은 우리 학회로서는 약간의 도약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임회장 김성철박사를 위원장으로 한 학회발전위원회의 노고로 학회상을 대폭 수정하여 기존의 상암고분자상, 학술상, 기술상 외 신진학술상, 우수논문상, 우수학위논문상, 공로상을 새로 제정하여 금년부터 춘계 및 추계학회에서 나누어 시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상들은 공로상을 제외하고 모두 젊고 활기찬 회원들을 발굴하여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또 적극적으로 학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학회이므로 회원 여러분이 학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주셔야 학회도 발전하고 위상도 크게 높아져 세계적인 학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단지 한가지 아쉬운 것은 IMF사태로 인해 상암고분자상의 상금이 반으로 줄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두 번의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등록인원이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학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날로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계(4월)는 경희대 수원 캠퍼스에서 수상 및 특별강연 2편을 포함해 52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추계(10월)는 유성의 충남대에서 초청강연 2편을 포함해 614편이 발표되어 점차 발표논문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고, 논문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IMF사태로 중단되었던 고분자 토론회(5월)는 한솔오크벨리에서 다시 개최되었고, 고분자 아카데미(6월)는 기술표준원, 고분자 산학연(7월)은 설악한화리조트, 고분자 기기분석(11월)은 한국화학연구소에서 성황리에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학회지 발간사업은 예년과 같이 “폴리머” 6회, “고분자 과학과 기술” 6회, “Korea Polymer Journal” 6회를 발간하였습니다.

지난해 여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학회의 많은 행사를 치르는데 수고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성철 수석부회장, 이상원 전무이사, 이두성 총무이사를 비롯한 여러 운영이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 많은 학회행사들을 무사히 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금년 21세기 첫해에 학회 운영을 맡은 김성철 회장, 정진철 수석부회장, 이두성 전무이사, 최길영 총무이사과 학회 임원 및 운영이사들께 건투를 빌며, 우리 한국고분자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1년 1월 1일

전임회장 김 광 응